

에이전트를 이용한 특허시스템 변화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표경민 **이은경

정보통신연구진흥원

*gmpyo@iita.re.kr **eklee@iita.re.kr

Agent based analysis of Economic Effects of Changes in Patent System

*Gyungmin Pyo **Eun-Kyung Lee

IITA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및 관리시스템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활동의 중요한 성과치로 활용가능한 특허에 대한 시스템정비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ICT분야의 특허현황을 살펴보고 변화하는 특허시스템(수수료감소 등)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해보았다. 그 결과 특허비용감소가 특허의 질적 향상이나 개별 구성원의 동기부여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I. 서론

세계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제고에 대한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활동의 산출물로서 기술상용화 실적 등에 관한 요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술상용화를 위한 경제적 이익 확보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을 위한 시스템 정비가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특허청이 2006년 5월을 기점으로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면서 고객의 비용부담완화와 편익 증진을 위해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특허출원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법령정비에 매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지적재산권을 기반

으로 한 ICT 분야의 최근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II장에서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변화하는 특허제도와 관련하여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한 모형 및 결과를, IV장에서는 분석결과에 대한 결론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II. ICT분야 연구개발활동 현황 및 특허

특허자료는 IPC(국제특허분류)와 NACE(산업분류)와의 연계표¹⁾ 및 OECD에서 제시한 산업분류 내

1) Schmoch, Ulrich et. al., "Linking technology areas to industrial sectors", final report to the European Commission, DG research, 2003.